

민주통합 전대경선 막을랐다

9명의 주자들 온·오프 라인망 가동 본격 표밭갈이

친노 견제속 "통합·경륜" Vs "세대교체" 공방 치열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전이 27일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1차 관문인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한 9명의 후보는 이날 온·오프라인 망을 총가동하며 표밭갈이에 나섰다.

이번 전당대회는 통합야당의 첫 지도부를 뽑는 경선인 동시에 내년 총·대선을 이끌 새 선장을 선출하는 의미가 있다. 또 민주통합당 창당에 참여한 각 세력의 판도를 결정할 계기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다.

본선전은 시민 투표 비중이 크고 내달 7일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투표합의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 누구도 승부를 쉬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함영숙 후보는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선거라는 것은 실제로 선거 기간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고 대세를 경계했다.

문성근 후보는 소설가 공지영, 영화감독 이창동, 시인 안도현 등 가까운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SNS 홍보를 돕고 있다.

박영선 후보는 젊은 세대의 큰 지지를 받는 '나는 팝스타'의 정봉주 전 의원이 수감되기 전에 함께 찍은 사진과 관련 글을 트위터에 올리며 젊은층의 표심을 파고들었다.

박지원 후보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회호 여사를 방문, '북한 전문가' 이미지를 부각할 예정이고, 이인영·김부겸·박

웅진 후보 등은 SNS와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전략을 짜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메시지 캠페인에 주력했다.

이강래·이화영 후보는 28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13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합동연설회와 TV토론 준비에 시간을 쏟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선전에서는 우선 가장 강력한 대표후보로 거론되는 한 후보를 겨냥한 친노 견제론이 화두로 등장했다. 특히 과거 '정세균 대표' 체제 하에서 지방선거 공천을 좌지우지했던 일부 486세대에 대한 우려가 옛 민주당 원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어 초반 판세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 세대교체론도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김부겸·박영선·이인영 후보 등 40~50대 주자들이 하나같이 세대교체론을 들고 나와 선두권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 한 후보와 박지원 후보를 겨냥했다.

본경선에서는 시민의 참여가 어느 정도나 이뤄질 지가 승부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 의사를 70% 반영키로 한 경선틀의 취지와 달리 자발적 참여가 저조할 경우 후보 간 선거인단 모집경쟁이라는 조직선거로 흐름이 바뀌어 크기가 커질 수 있다.

호남권 주자로 출마했던 박지원·이강래 후보 모두 예선을 통과할 것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특히 박 후보는 통합 과정에서 '반(反) 통합론자'라는 공격을 받아 열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에도 불구하고, 본경선전에 들어가자 호남표를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서 본경선이 1인2표제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다양한 정파와 정치세력이 분산 무대에 오름에 따라 향후 경쟁 구도가 본격화하면서 후보 간 표심을 얻기 위한 합종연횡도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지도부 경선 출마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협약식에서 손을 잡고 공명선거를 다짐하고 있다. <사진위>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후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비대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가 라운지

이개호, 담양·곡성·구례 출마

이개호(52)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내년 총선 담양·곡성·구례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부지사는 27일 담양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세기 전남 미래를 설계하며 새 전남 시대를 열었던 힘과 지혜를, 제 고향 구례·곡성·담양발전을 위해 펼쳐보이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례·곡성·담양은 전라선 KTX가 고속화될 경우 1시간30분이면 수도권에 도달하는 전남 동북부 관문으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야 한다"며 "구례·곡성·담양 3대 관광 프로젝트를 추진, 전남의 녹색 휴양 관광 허브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남, 고흥·보성 출마 선언

민주통합당 김승남(46) 예비후보는 27일 "내년 총선을 통해 기성정치의 무능과 오만을 변화시키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상생 협력하는 공동체의 시대, 정치혁명의 시대를 열어가는 도정에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고흥·보성 선거구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치혁명, 광주전남 신성장 동력의 발굴, 고흥·보성지역내 세계 최초 자연재배단지 조성, 복지정책의 효율적 예산배분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이강, 서구 을 출마 선언

민주통합당 김이강 예비후보는 27일 "국민과의 소통이 단절된 기성정치를 혁신해 국민의 이해와 요구가 정치권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 광주 서구 을 출마를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강한 복지, 강한 경제"를 슬로건으로 사회적 안전망이 튼튼한 복지국가와 중산층이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진, 광주 북갑 출마 선언

민주통합당 김경진 예비후보는 27일 "국민과 함께 하는 변화의 주역이 되겠다"며 내년 총선에서 광주 북갑 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과 광주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변화의 키워드로 예산지출의 내실화와 과학기술 발전, 철저한 지방자치를 표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갑석, 광주 서구 갑 출마

민주통합당 송갑석 예비후보는 27일 "새로운 변화의 요구 앞에 전국의 젊은 리더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4·11 총선 광주 서구 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송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은 정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광주 정치권은 변화의 열망에 안일하고 무능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광주의 정치가 변해야 민주통합당이 변하고 대한민국이 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화영, 오늘 출판기념 콘서트

민주통합당 지도부 선출 선거에 출마한 이화영 후보(전 한국 YMCA 사무총장)가 28일 오후 6시30분 광주 5·18 기념문화관 대동홀에서 '영원한 청년 이화영 출판기념 콘서트'를 연다.

이날 출판기념 콘서트에서는 이 후보가 틈틈이 쓴 시와 산문을 엮은 책 '세계가 만약 하나의 집안이라면'이 소개되며, 가수 김원중 초청 공연과 함께 청중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후보는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한나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박근혜 출범...김종인·이준석 등 11인 비대위 구성

한나라당은 27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마련한 비대위원 인선안을 의결했다. 비대위는 당내인사 4명과 외부인사 6명으로 구성됐다. 당내에서는 당연직 비대위원인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외에 쇄신파로 분류되는 김세연·주광덕 의원이 참여하게 됐다.

외부인사로는 최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펜토로 알려져 주목받은 김종진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보수 논객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조동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이양희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사 6명으로 구성됐다. 당내에서는 당연직 비대위원인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외에 쇄신파로 분류되는 김세연·주광덕 의원이 참여하게 됐다.

이들은 이날 첫 회의를 열어 당 쇄신방향과 당직 인선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이날 상임전국위에서 "그동안 당이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을 줄 알았다"며 "이제는 그 고민을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기득권 포기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회기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확정짓기로 했다고 황영철 비대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민주 '박근혜 비대위'에 견제구

디도스 공격·대통령 측근비리 해명 요구

민주통합당은 27일 출범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를 경계하기 위해 각종 현안 카드를 꺼내들며 압박을 시작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대통령 측근·친인척 비리 의혹 등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를 요구하며 견제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4대강 부수 예산 등 토목예산에 대폭 줄이고 그 돈을 어렵고 힘든 서민복지 예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기를 희망한다"고

남을 세웠다. 오 대변인은 이어 "4대 특검과 2대 국정조사를 수용해 국가 문란 사태인 디도스 테러에 대한 사실은 수사과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온갖 비리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4대강 부수 예산 등 토목예산에 대폭 줄이고 그 돈을 어렵고 힘든 서민복지 예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기를 희망한다"고

예약접수 중 = 이것만 알면 합격한다! = **개강: 1월 2일**

공무원 합격실명회

7급 종합반 9급 종합반 범일시거보 7급 검철직 소방직 농업직 9급 야간반 기술직 사회복지직 명품 '명령단'

당일 이벤트

최근 5년간 기출문제 무료증정
 종합반 교재 5권 무료추첨 5명
 영어/한국사 교재 2권 무료추첨 10명

대한민국 대표 고시학원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
 www.hanbitgosi.co.kr